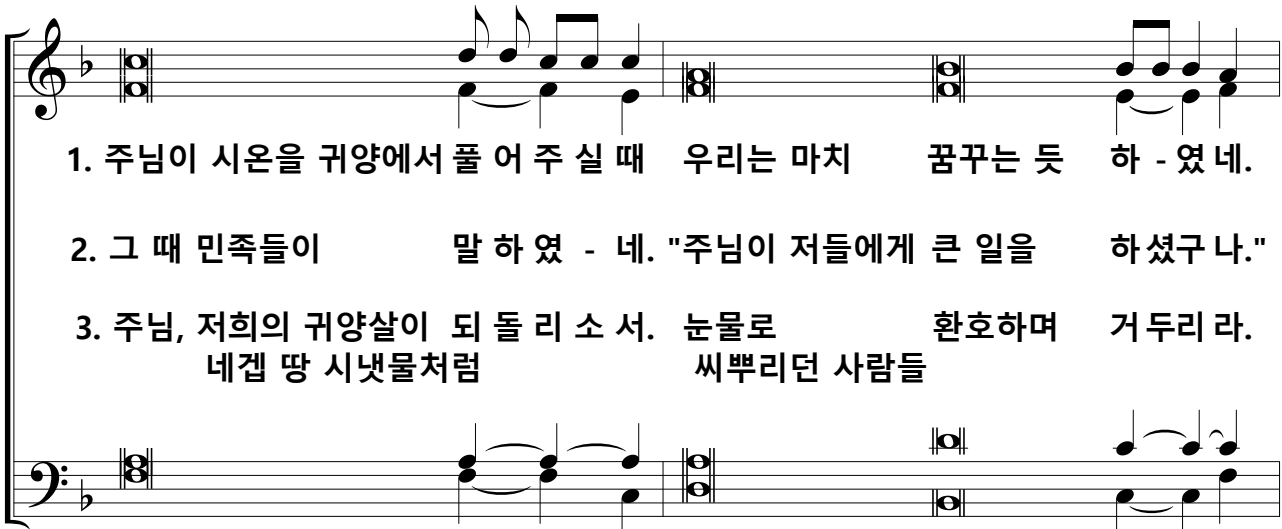


대림 제 2 주일 화답송 [다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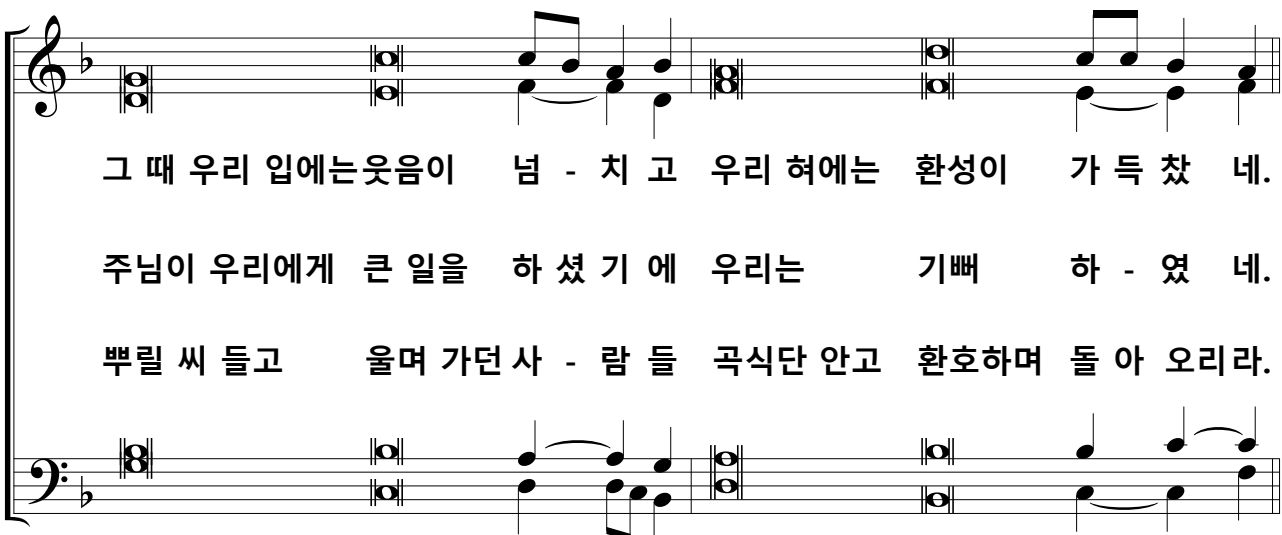
시편 126(125), 1-2 ㄱ ㄴ . 2 ㄷ ㄹ - 3. 4-5. 6



(후렴) 주 님 이 큰 일 을 하 셧 기 에 우 리 는 기 뻔 하 였 네

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 어 주 실 때 우 리 는 마 치 꿈 꾸 는 듯 하 - 였 네.
 2. 그 때 민족들이 말 하 였 - 네. "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 을 하 셧 구 나."
 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되 돌 리 소 서. 눈물로 환호하며 거 두 리 라.
 네 겹 땅 시냇물처럼 씨 뿌 리 던 사 람 들

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-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 득 찼 네.
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 을 하 셧 기 에 우 리 는 기 뻔 하 - 였 네.
 뿌릴 씨 들고 울며 가 던 사 - 람 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 오 리 라.